

한-중 직유 번역과 번역전략 연구*

宋岷宣**

目 录

1. 서론
2. 직유의 유형과 비유 번역에서의 직유
3. 직유 번역 분석과 번역전략
4. 결론

1. 서론

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문화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번역에 있어 문화간의 차이와 극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와 번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현우는 이런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번역의 어려움과 불확정성을 낳는 원인이며 동시에 번역의 '사이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밝혔으며,¹⁾ 김효중은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사가 도착어와 출발어의 두 문화 사이의 비교능력 즉 두 문화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문화와 관련해서 그들 자신이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中科 副教授

1) 이현우, 「번역과 '사이공간'의 세 차원」, 『코기토』 제69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7-28쪽 .

어떻게 보이고, 다른 문화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간문화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²⁾

번역에서 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유 표현이다. 한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비유는 그들이 갖는 문화적 배경지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가지 비유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는 것은 직유와 은유이고, 번역사가 제일 자주 만나게 되는 것도 직유와 은유이다. 이처럼 출현 빈도가 높은 비유법이지만, 직유나 은유의 번역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소수의 연구자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직유 번역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은유 번역을 다루는 논문은 러시아어, 영어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고, 한-중 번역에서도 이선희³⁾가 문학작품 번역 중 “화”의 개념적 은유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나, 직유 번역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한-영 문학 번역에서 드러난 직유의 번역에 대해 한국 문학작품의 원본과 번역본을 대조하고 번역의 양상과 번역자의 개입 방식을 분석한 박옥수⁴⁾의 논문 외에 다른 논문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번역과 문화의 긴밀한 관계, 비유가 문화번역에서 갖는 중요성 등을 생각할 때, 번역 텍스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비유인 직유 번역에 관한 연구는 수준 높은 번역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직유 표현이 중국어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번역사들이 사용한 번역방법들을 분석하여 직유 번역에서 활용되는 번역전략을 찾을 것이다.

2) 김효중,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2004, 17-62쪽.

3) 이선희, 「한중문학작품 번역 속의 ‘화(憤怒)의 개념화 양상: 개념적 은유, 환유 이론의 관점에서」, 『中國語文學』 嶺南中國語文學會 2009, 409-434쪽.

4) 박옥수, 「한영 문학 번역에 드러난 직유의 번역」, 『동아인문학』 제24집, 동아인문학회, 2013, 235-260쪽.

2. 직유의 유형과 비유 번역에서의 직유

1) 직유의 유형

『문학비평용어사전』⁵⁾에 따르면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결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직유의 특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 ~인양, ~같은, ~만큼’ 등의 연결어로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별개의 두 대상영역을 결합시켜 이 양자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직유는 ‘如, 像, 似, 好像, 像似的, 如同, 好比’ 등을 사용하여 두 대상의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⁶⁾ 직유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하길종이 그의 논문에서 직유를 형태와 의미에 따라 유형을 나눈 바 있다. 우선, 직유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비유어의 위치에 근거해 직접 직유와 간접 직유로 나눌 수 있는데, 직유 표시어가 비유 대상이나 비유 기준에 직접 후행되는 형태이면 직접 직유이고, 직유 표시어가 비유 대상이나 비유 기준에 직접 후행되지 않는 형태이면 간접 직유가 된다. 이 외에도 비유 구조에 따라 단형 직유와 장형 직유로 나눌 수 있는 데, 단형 직유는 하나의 직유 구문을 두 구문으로 나눌 수 없으나, 장형 직유에서는 하나의 직유 구문이 두 구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비유 방향에 따라 정방향 직유, 역방향 직유로 나누어진다. ⁷⁾ 직유를 의미에 따라 나누면, 단일 직유, 복합 직유, 관용 직유로 나누어지는 데, 단일 직유는 의미 해석의 범위가 한정 이 되지만, 복합 직유는 의미 해석의 범위가 한정 이 되지 않는다, 관용 직유 의 경우에는 의미 표현과 해석이 고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적인 언어 경험 이나 의도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고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922&cid=272&categoryId=272>

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2, 890쪽.

7) 하길종, 「직유 표현의 유형 : 형태상의 분류」, 『한글』 제261호, 한글학회, 2003, 149-171쪽 .

독자도 자신의 직접적인 언어 경험에 의해 재해석하기보다는 고정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⁸⁾

번역의 경우, 출발어 텍스트의 내용을 도착어로 전달함에 있어 문법에 기반을 둔 형태보다는 의미의 전달을 목적으로 함으로, 직유의 유형 중 형태의 변화는 번역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의미의 유형의 경우, 단일 직유와 복합 직유는 비유의 기준어가 제시되었느냐에 따라 의미 해석의 범위가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번역에 있어 비유의 기준어 유무만 명확하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용 직유의 경우에는 문화적 배경의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번역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용 직유의 예로는 “닭똥 같은 눈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번역사가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비유 번역에서의 직유와 은유

비유 번역에서 직유와 은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둘 다 매우 높으나, 도착어의 독자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직유가 은유보다 쉬운 것으로 보인다. Nida는 비유가 의도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은유 형태를 수정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유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⁹⁾, 박노철도 은유와 직유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Nida와 입장을 같이 해 은유가 직유로 번역되면 도착어 독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이혜승은 노-한 은유 번역 결과물을 분석하면서 Larson의 번역전략을 바탕으로 7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출발어의 은유가 도착어에서도 은유

8) 하길중, 「직유 표현의 유형 : 의미에 따른 분류」, 『이중언어학』 제261호, 제23호 2003, 307-326쪽 .

9)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220쪽.

10) 박노철, 『비유언어 번역방법』,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131쪽.

로 번역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유가 직유로 바뀌는 번역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¹¹⁾

이처럼 은유가 직유로 번역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가 제시한 바가 있으나, 직유가 은유로 번역되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데, 이는 은유보다는 직유가 도착어 독자에게 더 잘 수용되기 때문에, 직유 번역에 있어 독자의 오해를 더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은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직유 번역 분석과 번역전략

본고에서는 직유 번역에서 번역사가 선택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신경숙의 『바이올렛』, 『깊은 슬픔』, 『엄마를 부탁해』의 한국어 원본¹²⁾과 중국어 번역본¹³⁾을 대조하여 결과물 중심의 번역 분석을 진행하고, 그 번역전략을 탐색하였다.

1) 직유에서 직유로의 번역전략

도착어 독자들이 출발어의 직유 표현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면, 직유에서 같은 직유로 번역하는 것이 번역자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직유에서 직유로의 번역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번역전략으로 분석대상 텍스트

11) 이혜승, 『은유는 번역될 수 있는가』,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10, 103-137쪽.

12) 신경숙, 『바이올렛』, 서울: 문학동네, 2001.
신경숙, 『깊은 슬픔』, 서울: 문학동네, 2006.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과주: 창비, 2008.

13) 申京淑 著 許連順 譯 『紫羅蘭』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申京淑 著 徐麗紅 譯 『深深的憂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申京淑 著 薛舟 徐麗紅 譯 『尋找母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0.

모두에서 다수 등장하였다.

ST1. 14)

아이는 즐랑즐랑 순한 강아지처럼 그녀를 따라왔다. (『깊은 슬픔』, 481쪽)

TT.1

孩子也仍然像只溫順的小狗, 乖乖地跟在她身後。(344쪽)

ST2.

가득 찬 물잔에 물을 더 부으면 넘쳐흐르듯이, 그러듯이. (『깊은 슬픔』, 18쪽)

TT2.

如同往盛滿水的杯子裏倒入更多的水, 杯中之水才能漫溢而出。(10쪽)

ST3.

그녀는 마치 화원이 부르기라도 한 듯 그날 공중전화 부스 속에서 나와 화원 쪽으로 건너갔다. (『바이올렛』, 31쪽)

TT3.

仿佛花店在召喚, 那天她走出電話亭, 朝着花店走了過去。(19쪽)

ST4.

그녀는 얼굴에서 거미줄을 걷어내듯 관엽의 잎사귀를 일일이 만져본다. (『바이올렛』, 256쪽)

TT4.

她撫摸着觀葉植物的葉片, 就像拔掉臉上的蛛網。(184쪽)

ST5.

그런 그에게 한여름 오후에 전해진 다급한 동생의 목소리는 안쪽이 얼지 않은 얼음판을 디뎠을 때처럼 쟁 소리를 내며 그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다. (『엄마를 부탁해』, 84쪽)

TT5.

一个夏天的午後, 弟弟急匆匆的聲音打破了他平靜的生活, 宛如踩着尚未凍實的冰面, 發出喀嚓的聲音。(62쪽)

14) 표기의 편의를 위해, 출발어 텍스트는 ST로 도착어 텍스트는 TT로 표기한다.

2) 직유를 직유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는 전략

직유를 직유로 번역했을 때, 도착어 독자가 의미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유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게 된다.

ST6.

걱정거리가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가로짓는데 뇌 속의 모든 것이 출렁거리며 한쪽으로 쓸러가는 듯한 편두통이 느껴졌다. (『바이올렛』, 174쪽)

TT6.

她搖了搖頭，表示沒什麼心事，腦海里的一切也跟着搖蕩，激起陣陣偏頭痛。(125쪽)

ST6에서 “편두통” 앞에 있던 직유의 표현이 TT6에서는 직유의 표현을 쓰지 않고 그대로 풀어썼는데, 이는 비유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나의 구문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장형 직유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ST7.

이번엔 세면장앳것이 난리가 난 듯 울어대죠. (『깊은 슬픔』, 377쪽)

TT7.

這時，洗臉池的鬧鐘又大聲響起來。(268쪽)

ST7의 “난리가 난 듯”이 TT7에서는 “크게”라는 의미의 “大聲”으로 번역되었는데,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이미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중국어로 직역되었을 경우 독자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이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ST8, ST9, ST10의 표현도 한국어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관용 직유로 TT에서는 다른 비유법을 취하지 않고 표현했다.

ST8.

아이가 곧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을지도.(『엄마를 부탁해』, 263쪽)

TT8.

說不定孩子哭得上氣不接下氣。(210쪽)

ST9.

그는 얼음장 같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를 부탁해』,91쪽)

TT9.

他抓住媽媽冰冷的手, (68쪽)

ST10.

넋이 나간 듯했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웠던 그녀의 걸음걸이가 어느 순간
뻣뻣해지기도 했다. (『바이올렛』,270쪽)

TT10.

她失魂落魄, 步幅却還算自然, 只是偶爾會變得僵硬。(194쪽)

ST11의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 직유인 “여우 같은”을 역시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인 “狐狸精 狐狸精”을 관용적 은유로도 볼 수 있으나, 이미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라 은유보다는 관용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ST11.

“저년, 여우 같은 년들!” (『바이올렛』,177쪽)

TT11.

“這娘們兒, 簡直是狐狸精!” (127쪽)

3) 직유를 부가적 설명이 추가된 직유로 번역하는 전략

직유에서 직유로 번역할 때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면 독자들이 이미지나 의미를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ST12.

굴러내려오는 바윗들에 얼굴을 찢기는 듯이 고통스런 날들의 연속이다.
(『바이올렛』,110쪽)

TT12.

每天都是痛苦的延續，就像滾下千斤巨石，破爛了我的臉。(79쪽)

ST12에서는 단순히 “굴러내려오는 바윗돌”로 표현이 되었으나, TT12에서는 무게와 크기가 강조되는 “千斤巨石”로 번역되어, 독자들에게 더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4) 직유를 상이한 직유로 번역하는 전략

ST의 직유를 TT의 상이한 직유로 바꿀 수 있는 데, 이는 TT에서 이미 관용화된 직유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ST13.

내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듯이 아슬아슬한 느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바이올렛』, 145-146쪽)

TT13.

她也總是有一種如履薄冰的感覺。(105쪽)

ST13의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듯이 아슬아슬한 느낌”을 중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의 뜻을 지닌 成語 如履薄冰을 사용해 전달하였다.

5) 직유 표현을 생략하는 번역전략

ST의 직유 표현을 TT에서 생략해버리는 경우를 찾을 수 있는 데, ST14의 경우에는 한 문장에 두 개의 직유가 있어, 번역사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한 경우이다. 이는 하나의 비유 주체에 두 개의 직유가 사용되어, 두 개를 모두 번역할 경우 ST가 주는 이미지나 예술적 감각을 잃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다.

TT14에서는 번역사가 ST14의 “꽃 지는 그림자마저 아른아른 비칠 것 같은”을 택하고, 그 뒤에 나오는 “숨 같은”을 생략했다. TT15에서는 “금방 쓰러질 듯”을 생략하고 문장의 간결함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

ST14.

꽃 지는 그림자마저 아른아른 비칠 것 같은 투명한 햇살이 숨 같은 그런 날, (『깊은 슬픔』, 574쪽)

TT14.

那天的陽光很清澈, 甚至能隱約映照出落花的影子。(412쪽)

ST15.

커다란 유리창이 있는 카페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 쓰러질 듯 맥이 빠져 있다. (『바이올렛』, 178쪽)

TT15.

她走進鑲着大玻璃的咖啡館, 背影顯得那麼疲憊。(128쪽)

4. 결론

번역은 단순히 언어와 언어를 대응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소통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비유는 문화적 배경지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표현 방법으로, 소통에 있어서의 문화간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유법 중, 직유는 은유와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번역과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직유의 번역전략 연구는 문화간 차이를 좁히고, 효율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ST로써의 한국어 원본과 TT로써의 중국어 번역본을 대조 분석하여, 1) 직유에서 직유로의 번역, 2) 직유를 직유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번역, 3) 직유를 부가적 설명이 추가된 직유로 번역, 4) 직유를 상이한 직유로 번역, 5) 직유를 생략하는 방법 등 직유의 번역전략을 5가지로 나누었다.

은유의 번역전략과 비교해보면, 은유의 경우에는 직유로 번역하는 전략도 활용되고 있으나, 직유에서는 은유로의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번역사가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직유에서 직유로의 번역이나, 직유로 번역할 때 의미의 등가나 작품이 갖는 예술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번역전략을 시도하고 그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직유의 번역 양상과 번역전략이 향후 통번역 교육 관련분야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아직 비유 번역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이 분야의 연구가 촉진되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 강수정,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제1권4호, 한국번역학회, 2000.
- 김효중,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2004.
- 남철진, 「한국 신문에 나타난 문화소의 중국어 번역 고찰 - 단어 차원의 문화소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7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3.
- 모나 베이커 저, 곽은주 외 역, 『말바꾸기-번역학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2007.
- 박노철, 『비유언어 번역방법』,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 박옥수, 「한영 문학 번역에 드러난 직유의 번역」, 『동아인문학』 제24집, 동아인문학회, 2013.
- 신경숙, 『바이올렛』, 서울: 문학동네, 2001.
- 신경숙, 『깊은 슬픔』, 서울: 문학동네, 2006.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과주: 창비, 2008.
- 이선희, 「한중문학작품 번역 속의 ‘화(憤怒)의 개념화 양상 : 개념적 은유, 환유 이론의 관점에서」, 『中國語文學』 嶺南中國語文學會 2009.
- 이정순, 「중-한 번역에서의 문화 조절과 권력담론 - 중-한 광고텍스트 번역의 자국화와 이국화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6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2.
- 이현우, 「번역과 ‘사이공간’의 세 차원」, 『코기토』 제69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 이혜승, 『은유는 번역될 수 있는가』,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10.
- 전기정, 「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와 번역 전략 : 『阿正傳』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51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정호정,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9.
- 하길중, 「직유 표현의 유형 : 형태상의 분류」, 『한글』 제261호, 한글학회, 2003.
- 하길중, 「직유 표현의 유형 : 의미에 따른 분류」, 『이중언어학』 제261호, 제23호.

2003.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1964.

申京淑 著 許連順 譯 『紫羅蘭』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申京淑 著 徐麗紅 譯 『深深的憂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申京淑 著 薛舟 徐麗紅 譯 『尋找母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2.

Abstract

Translating Similes from Korean into Chinese and Related Strategies

Song, Hyun-sun

Translation is not the process which is simply change one language into the other. but the process to make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Analogy as the way to express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background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in communicating. Simile and metaphor are best-known among figurative expressions, which are used most frequently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us, translation strategies study on similes is to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is study, by carrying out contrastive analysis of Chinese translation(TT) from Korean source text (ST), five translation strategies are introduced: 1) Translating similes to similes, 2) Translating similes with other translation skills, 3) Translating similes with additional explanations, 4)Translating similes into other similes, 5) Translating similes by omitting similes

Key words : simile, metaphor. translation strategies, ST(source text), TT(target text)

투 고 일 : 2014. 1. 10. / 심 사 일 : 2014. 1. 20.~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